

李善熙 研究

全 明 喜

〈차 례〉

- | | |
|------------------|-----------|
| 1. 서 론 | 2.1. 生涯 |
| 1.1. 기존논의 검토 | 2.2. 作品世界 |
| 1.2.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 3. 결 론 |
| 2. 生涯와 作品世界 | |

1. 서 론

1920년대 우리 나라에서는 계몽주의적 사회사상의 결과로 여성교육이 양적으로 팽창해지고 근대 사회로의 과도기적 현상을 거치는 동안에 '신여성'이라는 이름의 선각자들이 나타난 때다. 이 선구적 여성들은 여성해방과 자유연애사상, 개인주의를 부르짖으며 화려하게 문단에 등장하는 여류문인들을 탄생시켰다. 그리하여 김명순, 김일엽, 나혜석 등 초기 여류문인들을 거쳐 30년대 들어서면서 부터 노천명, 모운숙, 장덕조, 박화성, 백신애, 강경애, 최정희, 이선희, 김말봉 등 많은 작가들이 활발하게 작품활동을 펼쳤다. 여성작가라는 입지에서 보는 단순한 여성해방이라는 사회적 풍조반영의 차원을 넘어서, 문학 그 자체를 위한 작품으로 여성문학을 꽃피웠다.

그 중, 1930년대 중반에 데뷔한 이선희는 30년대 초반부터 활약한 장덕조, 강경애, 백신애와는 또 다른 작품세계로 여성의식을 섬세하게 그

려내고 있다. 당시의 다른 여류작가들이 바깥세계의 현실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하여 그녀의 소설 속에는 여성의 내면 심리묘사가 아주 치밀하게 이루어져 있다. 해방 후, 1946년 월북함에 따라 비록 문단활동기간이 짧긴 하지만 위의 다른 여류작가들 못지 않은 왕성한 문필활동을 한 것을 그의 작품 외에도 당시의 여러 자료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그런 가운데, 그동안의 그에 대한 연구는 실로 미흡한 감이 없지않다.

1.1 기존논의 검토

기존의 논의를 찾아보면 우선, 이선희는 거의 언급되지 않은 작가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그녀가 자의였든 타의였든 「월북작가」로 분류되어 왔고, 작가의 생애나 작품의 연보조차 확실하게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존의 논의 가운데 후대에 이루어진 것은 매우 단편적 언급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활동하던 당대의 평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탄탄한 문학적 기반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동료작가 장덕조는 「문학적으로 놀라운 고도를 가진 수완으로 새로운 사회, 새로운 사실들을 잇달아 그려내는 그의 수법에 저우히 기뻐하며 감탄했다.」(女性, 1938. 9) 하였으며, 김남천은 「속般에 소설을 썼다. 그리고 稱讚을 받았다. 지금 나는 氏에게 문학적 苦言을 드리려 한다. (中略) 말을 너무 골루고 문장에만 유의하면 글이 말려서 뉴안스가 없어지고 운문같이 되어 버린다. 散文精神을 정당히 이해하기 바란다.」(女性, 1937. 9)고 그녀의 문체적 특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당시에도 그녀의 문체가 타 여류작가와 달랐음을 반증하는 중요한 자료임을 입증하고 있다. 또, 당대 여류평론가 任淳得은 「우리들의 상식과 도덕과 윤리에 대한 반발로써 計算書를 비롯해서 蕩兒에 이르기까지의 작품으로써 구체화되었다.」(女性, 1940. 9)고 그녀의 새로운 思考

를 말했다.

백 철 교수는 「이선희는 결코 첨단적 유행가도 아니요, 바늘같이 예민한 신경을 가진 여기자감은 더군다나 아니요, 俗務의 요소가 지극히 풍부한 가정의 여인이다.」 또, 「空想上の 엑조티시즘이 이 작가의 취미다. 이 엑조티시즘은 이 작가문학의 주조이다. 〈午後 十一時〉의 소녀의 모험이나 〈蕩子〉의 등대 이야기가 모두 이 엑조티시즘과 일맥을 통한 작품세계인 것이다.」¹⁾라고 하면서 그녀의 空想性을 지적하였다.

또, 후대에 와서 김영덕 교수도 「현실타개를 위해 적극적인 생활의욕을 가지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싸워 나가지 못하고 도피적인 엑조티시즘으로 흐른다는 것은 작품내용으로 볼 때 작품모랄의 부족」²⁾이라 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은 막연한 취미 이상의 깊이 있는 그녀의 정신적 내면세계를 간과한 것이며, 당시 봉건적 사회제도의 황포 속에서 살아나가는 신여성, 도회지 여성들의 사고와 생활을 입체적 인물의 설정으로 성실히 보여준 작가적 태도를 다소 과소평가한 것이다.

작품의 깊이 있는 총체적 연구로는 서정자 교수의 논문이 1편 있다.³⁾ 이선희 작품 속의 주인공들 갈등을 신화비평에 근거하여, 단군신화 삼각구조의 반복 재현으로 파악했다. 이것은 필자가 보기에 서양신화의 틀인 용의 두 여성형(아프로디테와 푸쉬케)을 원용한 것 같았으나 이것을 우리 민족의 집단 무의식 단군신화에 포개어 분석 시도한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그러나, 여주인공을 웅녀형과 범형으로 구분 지을 때 그 변별적 자질이 상당히 자의적임을 엿볼 수 있었다.

그 외, 이재선 교수는 단편적으로 「보다 그의 문학의 본질적인 성격

1) 백 철, 朝鮮新文學思潮史, 백양당, 1949.

2) 김영덕, 한국근대의 여성과 문학 「한국여성사 2」, 이대 출판부, 1971.

3) 서정자, 〈이선희의 소설연구 - 인물의 삼각구조와 상정을 중심으로〉, 숙대 원우는 총, 1985. 8.

을 이루는 것은 남성원리로 부터의 여성의 피해자의식과 여성으로서의 보편적인 존재확인에 관한 문제이다. 때문에 그의 작품에는 여인의 불행이 전제되어 있다.⁴⁾고 보았다. 이것은 상당히 이선희 문학의 본질을 꿰고 있어 공감어 가는 분석이다.

1.2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어느 작가의 작품세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작가의 인간적 삶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다. 소설의 제1위의 표준은 개인적 경험에 대한 진실이었다.⁵⁾ 즉, 작가의 실제 체험을 토대로 작가적 상상이 빚어내는 보편적 진실이 소설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선희 문학을 해명할 수 있는 실마리도 그녀의 자전적 요소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작가의 자전적 요소를 밝혀, 작품과 결부시켜 그 속에서 추출되는 작가의 심층심리와 자의식의 세계를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작가 이선희는 연보 작성이 매우 어렵다. 연고지가 이북인 까닭도 있겠지만, 자전적 기록이 될 만한 기회의 수필에서도 신변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그녀 특유의 환상적 修辭로 초점을 흐려 놓는 예가 허다하다.

이에, 본고는 먼저 작가가 활동할 당시의 문예지, 잡지, 신문에 실린 시, 소설, 평론, 수필, 설문조사, 기사 등에서 작가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 종합하여 대강의 연보를 만든 다음, 이어서 작품을 읽어 그의 세계관을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하여 도출시킨 것과 연결시켜 보았다. 그리하여 이선희 문학의 색채를 선명하게 하여 30년대 후기의 순수문학에서의 그녀의 위치를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4)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흥성사, 1979

5) 박덕은, 현대소설의 이론과 적용, 새문사, 1989.

이 연구는 작가론 쪽에 비중을 두어, 그녀의 문학사적 위상설정의 기초작업으로 삼고자 하며, 이선희 문학의 큰 특성인 섬세하고 시적인 문체, 예리한 심리묘사, 감각적 문장을 치밀하게 분석 못한 것이 한계임을 미리 밝혀 둔다.

2. 生涯와 作品世界

2.1 生涯

이선희는 1911년 12월 17일 함경남도 함흥에서 출생했다. 그러나 성장기의 대부분은 원산에서 보냈다. 어머니는 그녀가 여섯 살 때 폐병으로 스물 여섯 젊은 나이로 돌아가셨다. 어머니의 얼굴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니 어머니의 사랑은 물론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에게 영향을 많이 끼친 아버지는 역사에 능하시고 글씨도 일가를 이루셨고, 대한의원(醫專 전신)을 3학년까지 수료한 수학과 물리의 수재였다고 한다.⁶⁾ 당시 드문 지식인의 가정에서 근대적, 개방적 思考를 접하여 그녀의 문학적 根幹이 되었을 것을 짐작하게 해 준다. 아래로는 어린 동생이 하나 있을 뿐 여고시절에도 식모까지 4식구가 단출하게 살았다.⁷⁾ 고향에서 元山樓氏高普를 졸업하고(1928년) 유학차 서울로 상경하여 이화여전 문과를 수료했다.⁸⁾ 그런데 자신이 쓴 자서전적 글 〈아버지와 산보하던 밤〉에서는 성악을 전공했다고 밝혀 앞으로 확인이 요청된다.

『선희야, 노래 하나 해라』

우리 아버지는 내게 열심히 音樂을 가르치셨다. 그 후 聲樂을 專攻하시신

6) 이선희, 〈아버지와 산보하던 밤〉, 여류작가의 掌篇自敘傳, 삼천리, 1941. 4.

7) 이선희, 〈나와 아버지 산보〉, 故鄕에 두고온 이야기, 女性, 1938. 11.

8) 권영민, 한국근대문인대사전, 아세아문화사, 1990.

것도 아버지의 所願이었다.⁹⁾

1933년 <개벽>사의 기자로 입사하여 1년간 근무하고, <신여성>지의 기자로도 활동한다.

이달 편잡부터 李善熙氏와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선희씨는 전에 여러 번 우리 新女性에 글을 실려주시는 분으로 씨의 저력있는 붓과 민첩한 활동은 새해부터의 우리 신여성지를 일층 빛나게 찬란스럽게 해 주실 것입니다.¹⁰⁾

1935년을 전후로 결혼을 한다. 부군은 극작가로 조선문학가동맹에 가입했다가 이태준과 함께 월북한 박영호씨이다. 최정희 여사의 회고에 의하면 그녀는 박영호의 후실로·전실 딸이 있었던 듯하다. 이것은 후에 그녀의 작품 속에 술하게 나오는 주된 소재가 된다. 구식 여자와의 결혼을 속이고 신식 여자와 결혼하여 여성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남성들의 횡포에 임하는 여성들의 섬세한 심리, 또 그에 이혼으로 권리를 되찾고자 하는 시도 등을 <도장>, <여인명령>, <처의 설계> 등 여러 작품에서 그리고 있다. 그리하여 작가 역시 소설 속의 등장인물처럼 피해자임을 연상하게 한다. 첫 아들을 낳고 난 뒤 1936년부터 <朝光>지에도 작품이 실리면서 1938년 5월 <조선일보>에 입사한다.¹¹⁾ 최정희, 모운숙, 장덕조, 노천명과 교류하면서 신여성, 여류명사로 이름을 얻는다.

이 후 그녀의 문필활동은 매우 활발해지면서, 저널리스트보다 개성 있는 섬세한 필치로 여성작가로서의 면모를 확고하게 했다. 그가 활약한 1930년대 사회 저류에는 봉건적 요소가 도도히 흐르고 있었지만 신여성을 중심으로 사회활동이 전개되어 간 시기이다. 남성우위의 사회에

9) 이선희, <아버지와 산보하던 밤>, 삼천리, 1941. 4.

10) 신여성, <편집후기>, 1933. 12.

11) 삼천리, <문단커거래>, 1938. 5.

서 당시 못여성들의 피해 입은 삶을 보고(폐습에 젖어온 당사자들은 그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지식여성 소위 신여성들은 여성으로서의 자아를 발견하고, 이 사회를 위하여 무엇인가 기여하고자 하는 의식의 흔적이 작품 속에 투영되어 있다.

이러던 그녀가 1946년 7월 소위 제1 월북파를 뒤이어 남편과 함께 월북한다. 이것은 그녀의 문학관과는 거의 무관하며, 남편을 따라 나선 것이라 추측된다. 아울러 그녀의 고향 원산에 「세상에서 제일 조와하는」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일 것이다(이때 아버지의 연세는 50대 중반이었다).

이북으로 간 뒤의 행적은 알려진 바가 없다. 최정희 여사의 회고에 의하면 북으로 간지 얼마되지 않아 괴혈병으로 사망했다고, 피난을 갔다 와서 바로 들었다고 한다.¹²⁾

16편의 소설, 1편의 시, 40여편의 수필과 잡문을 남겼다. 작품연보는 따로 첨부한다.

2.2 作品世界

우선, 이선희소설의 면모를 총체적으로 살펴, 그것을 첫째, 異國情緒와 원시적 情緒, 둘째, 어둠과 방황, 세째, 여성해방과 자기인식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그녀 자신이 피력한 바 있는 문학관에서 볼 수 있듯이 문학관이 무슨 主義니, 창작 方法이니 하는 것에 구애되지 않고, 개성과 낭만을 가장 중요시여졌기에¹³⁾ 어떤 도식적 분석방법을 원용하는 것은 오히려 그녀의 문학본질에서 벗어날 우려가 있다.

12) 서정자, 앞의 논문

13) 이선희, 정열과 낭만에 잠긴 이선희 여사, 여류작가방문기, 삼천리, 1936. 11.

『어떠한 제한 밑에서 비쳐지는 「예술품」은 반신불수가 아니면 뼈만 남은 앙상한 骨董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소설 속에서 두드러지게 보인 여성세계의 독특한 경험 묘사는 작가가 등장인물의 경험 안에서 한 순간의 「內的 現實」을 묘사하고 있는 페미니스트 문체임을 알 수 있었으니, 그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考를 달리하여 다루고자 한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그런 작가의 개성과 낭만같은 특질들의 근원적 정서가 어디에서 오는 가를 모색하는 한 방법으로 그녀 개인의 삶을 가능한한 깊이 들여다 보고자 한다. 또, 여러 자료에서 찾아낸 자전적 요소가 개인적 체험의 진실성을 넘어 작품 속에 어떻게 투영되었고, 그것이 어떤 사회적 의미로 확대되어 나갔는지 살펴보자.

2.2.1 異國情緒와 원시적 情緒

이선희 소설 속에는 수많은 외래어 사용과 함께 이국정서를 풍기는 분위기가 자주 등장한다. 이것은 그녀의 문학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여류문학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기도 하다. 이것을 두고 백 철은 「현실도피적 엑조티시즘」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렇게 치부하기엔 또 다른 이중적 의미, 즉 함축된 상징성을 띠고 있다. 이 情緒는 오히려 인간 본연의 본능에 가까운 자연에의 회귀, 원시성의 회귀가 함축된 정서이다. 현실을 피해 꿈꾸듯 이국정서에 빠진 것이 아니라 어려운 현실에 당면했을 때 인간의 본능적 야성과 가식되지 않는 감정표현으로 자유를 향한 탈출구를 찾고 있다. 따라서 당시의 식민지 치하의 캄캄한 현실에서 정면대결을 피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환상으로의 도피를 택한 것이라고 일축하는 것은 의도적 오류가 될 수도 있다. 어쩌면 그녀는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본성을 순수하고 대담하게 표현할 줄 안 작가였던 것이다. 아울러 작품 속의 원색적 욕설, 잔혹성도 원시적 낭만이 라고 볼 수 있다.

“그 검붉은 뺨이 입뻐.”

당장에 칼을 가지고 그 뺨을 짝 비벼내고 심했다. 비여서 하얀 뺨이 드러나게 하고 심했다.

그래서 제 몸을 물어뜯는 빈대나 벼룩이를 사람은 열심히 차져서 숙 문대거나 꼭 눌너 죽이면 시원해 하드시 자기도 그 두사람을 앓쩍 눌너 죽였으면 시원할 것 가탸다.

내가 할 수만 잇다면 당신의 그 더러워진 살점을 모조리 뜨더 팽개칫으면 조캣수.

“그 동안 내가 속썩은 생각을 하면 껌질을 반을 베껴노아도 시원치안캣는데 멀 잘했다고 제편에서 되려 세간을 부셔……” (中略) 청재는 오늘밤 소리가 침보게 대담하고 잔인해졌다. 그는 혼자 미친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자기머리를 쥐어뜨었다. 그러다가는 무엇이나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 때렸다.

우선, 〈妻의 設計〉에서도 이와 같이 남편의 외도에 대한 아내의 마음과 행동이 당시의 보편적 사고범주(굴종과 인내)를 넘어서는 인간 본연의 여성적 본능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정서도' 자전적 요소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바닷가에 살면서 바다의 무서운 원시성과 바다 건너 그 먼 곳을 그리워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미지의 세계에 대한 憧憬이 함께 교차하는 환경이 성장기 그녀의 정신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어떤 날 밤 두사람은 바닷가로 나갔읍니다. 곁에 사람을 알아 볼 수 없으리 만치 하늘과 땅이 먹같이 검고 걸어가는 우리의 발뿌리가 들리고 몸이 휘여서 꿈쩍하리 없으리만치 무서운 暴風雨의 밤입니다. 질벽같이 캄캄한 밤이라 섬 하나 보이지 않고 바다의 운곽조차 볼 수 없으나 그 산뎀이같은 파도가 흐물 흐물 밀려와서 바위와 沙場을 때리는 소리란 정신이 아찔하도록 요란스럽습니

다.

우리는 이러한 밤 바로 파도가 깨어져 물방울을 소낙비처럼 퍼붓는 바다가에 바위처럼 그냥 버티고 서 있습니다. 갑자기 알카하고 물결이 우리에게 뒤집혀 씨엿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에 휩쓸려 넘어졌으나, 우리는 아무런 비명도 지르지 않고 태연하게 다시 일어나 바다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자란 우리에게 그까짓 暴風雨가 다 뭐니까

여기 그녀의 자전적 수필 <내 男便의 첫인상 - 별것 없습니다>(朝光, 1937. 11)에서도 우리는 이선희가 좋아한 것이 막연한 바다에의 동경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바다가 지닌 원시성이 인간이 지닌 야만성과 연결이 되어 그녀의 근원적 정서에 배태되었을 것을 짐작케 한다.

또, 작품 속에 보이는 자유에의 갈망같은 것은 일찌기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함께 자랐기에 남성적 기질을 띠면서 봉건사회의 여자로서 받는 규제를 덜 받아 솔직담백한 기질을 가지게 된 것으로도 보이게 한다.

<탕자>의 나는 피서철이 지난 때 섬으로 여행을 떠난다. 그 섬에서 꽤 떨어진 근처 등대 구경을 하러 갔다가 진기한 경험을 하게 된다. 등대도 돌담도, 집도 모두 흰 그곳에서 말을 잃어 버린 등대지기와 창백한 얼굴의 긴 머리칼의 한 날카로운 정신주의자를 만난다. 그는 미친듯이 웃기도 하고 자신의 자살을 지켜 봐 달라며 나를 질겁시킨다. 그날 밤 난 그의 환영으로 잠을 못이루고, 이튿날 일부러 그 앞을 지나나 만나지 못한다. 도착하는 부두에서 맞은 편 배 선실 속에서 램포볼에 번뜩이는 식칼을 보고 회개 못한 탕자처럼 육지로 돌아가지 못한다.

여기에서 탕자의 의미는 무엇일까?

약혼자를 두고 한 정신주의자에게 넋을 빼앗겼던 자유로운 의식을 가진 자신을 이르는 건지 그 정신주의자를 이르는 건지 알 수 없으나, 「시퍼런 식도가 번쩍」한 것은 참여한 인간의 정신적 본능, 작품 전반에

깔려 있던 삶에의 권태, 인간존재에의 회의, 즉 죽음 뒤에 숨겨진 생명에의 갈구를 시사한 것이다. 이렇게 소재는 이국적 냄새를 잔뜩 풍겨, 그녀의 작품세계를 억조타시즘 일변도로 규정 짓게 하기 쉬우나, 다루고 있는 주제는 인간의 본능적 정서이다. 그런데 그녀는 왜 하필 이러한 이국적 소재를 남용했을까?

이것도 그녀의 자전적 요소와 결부시켜 보면 그 정서의 정체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어린 시절 집 근처 동산에는 숲에 싸인 수도원이 있었다. 천주교는 이 땅의 여성들에게 처음으로 여성의식을 각성시켰다. 신식교육을 받고 있던 그녀가 수도원에 대한 관심이 없었을 리 만무하다. 특히 외래 문물에 호기심을 느꼈을 것이다. 유달리 작품 속에 중세적 낭만이 점철된 것도 이런 성장기적의 남다른 환경 탓이었다. 성장기의 그녀에게는 사색과 독서의 장소가 바로 이 수도원 옆의 숲이었다.

나는 이 바윗뒤희안저 무거운 修道院의 秘密을 바라보고 잇노라면 검은 法衣를 입고 허리에 붉은 띠를 두른 修道士들이 손에 책을 들고 동산안을 거니는 것을 볼 수 잇소.

僧侶들이 가진 책은 아마 희랍말로 쓴 聖典이나 아마 그런 것들 이겠지요. 그들은 자기의 그림자를 끄울고 그 포도밭과 샘가에 거닐며 默想하오. (〈다람쥐〉, 女性, 1936. 8)

버터, 우유, 修士, 양젓, 피아노, 슈베르트의 음악, 오래된 신부의 무덤, 커튼이 달린 창이 있는 서양인의 집도 있었다(여러 편의 자신의 수필에서 발췌). 그 집의 지하실에는 해적선에서 훔쳐 온 보물과 시체가 있을 것이라며 동화 속의 이야기를 상상하노라면 한 광인 음악가가 바이올린을 켜며 나타나곤 했다.¹⁴⁾ 이때부터 그 이국적 문물은 그녀의 문

14) 수필 〈다람쥐〉, 여성, 1936. 8.

학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잡은 것이다. 또, 그녀가 자란 원산포구는 당시로서는 대표적인 무역항의 하나로 외국 문물이 들어가고 나가는 출입구였다라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그래서 그곳에는 이국인의 왕래가 잦았고 그 중 러시아인을 접할 기회가 많았다. 이런 지리적 환경이 이선희의 정서에 스며들었음에 틀림없다.

어느 잡지의 설문조사에 보면 남성의 매력을 묻자 「맨발에 슬립퍼를 끄는 길다란 다리, 원시적 노린내를 피우는 검소한 팔」(女性, 1938. 10)이라고 대답하였는데, 바로 러시아인과 같은 이국남자를 지칭하는 것이라 보여진다. 그 외에도 러시아를 들려오는 사람에게 그곳 형편을 늘 듣게 되니 논나리는 西伯利亞 벌판을 지나 莫斯科로 해서 南露 코카샤지방까지 한 바퀴 러시아땅을 늘 돌아보고 싶어 했다니¹⁵⁾ 이것 역시 지리적 여건으로 자연스럽게 배태된 정서이다.

인간의 본능조차 억압하는 봉건사회에 반기를 드는 신여성이었으니 조선의 가부장들보다 비교적 자유롭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이국인들이 훨씬 본성표출에 솔직하며, 자연적인 것, 원시적인 것에 가깝다고 보여, 자연히 그 쪽으로 끌렸을 것이다. 또 그녀가 「男性的 매력」을 묻는 설문에서 知的인 남성보다 뱃사람의 행색을 연상시키는 自然人을 내세운 것을 보더라도 막연한 현실도피적 엑조티시즘이 아니고, 그 인간본능적 원시성과 이국적 정서 두 가지의 정서가 혼합되어 그녀의 문학 속에 두드러진 특질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여인도〉, 〈칼멘〉 등의 작품 속 원시적 정열도 『여자들이 정열에 가득 찬 서반아에 가고 싶어』¹⁶⁾라고 인터뷰한 것에서 보면 그 정서적 근원이 원시적일 만큼 정열적이고 본능적임을 읽을 수 있다. 그녀가 동료 노천명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어느 사람의 미간에다 칼로 十字표라도

15) 〈정열과 낭만에 잠긴 이선희 여사〉, 1936. 11.

16) 상동.

그들만한 자극이 필요하오.」(〈천명에게〉, 女性, 1939. 5)라는 것은 그녀의 원시적 정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여인도〉에서는 인간의 性的 본능과 심리, 兩性(男性과 女性)의 존재론적 가치를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연상시키는 중세적 낭만이 담겨져 있다.

〈계산서〉 역시 이국정서에 놀랄 만큼 섬세한 감수성을 보여준다. 「배개통만한 감자」, 「동아줄같은 광선을 쏘는 대륙의 태양」, 「제정시대 장교의 초상화」, 「마적」, 「호인의 집」, 「이왕이면 좀더 여러 가지 생활을 씹어 보려고 그중에 빵장사하는 백계노인의 집에 유숙하기로 했다.」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단순한 이국정서를 넘어서 어떤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憧憬心의 표출이다. 「서울의 茶街를 헤엄치며 이 광야의 바람소리를 곁들여 들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천재의 요술 뿐이다. 하늘을 뚜껍으로 삼고 서글픈 바람만이 몸부림치는 이 광대무변한 들을 도심의 향락을 주무르며 생각할 수 있기엔 우리의 뇌장이 너무도 적다.」에서 보듯, 도시 속에서도 광폭한 바다나 황량한 광야를 꿈꾸며 목마르게 원시적 본능을 찾는 작가의 자유로운 정신세계가 나타나 있다.

이것은 수필 〈머루와 옥수수〉(1940. 10, 여성)를 읽어 봐도 회령땅 두만강 가에서의 경험에다가 이국정서와 원시적 생명력이 근원이 되어 이루어진 작품임을 알 수 있다.

2.2.2 어둠과 방황

이선희 소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어둠 속으로 외출하여 방황한다는 것이다. 외출이란 일시적 이탈로서 반드시 본래의 위치로 환원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집 밖은 항상 어둠이 기다리고 그 어둠 속에서 주인공은 안식을 찾아서 방황하게 된다. 그리하여, 바다 또는 섬에서 자신의 내면과 마주해

자신을 省察하고, 〈탕자〉에서처럼 「승고하고 아름답고 자애 깊은 여인 그리하여 맘에 안위를 얻고」¹⁷⁾, 때로는 〈처의 설계〉나 〈여인명령〉에서처럼 냉정하고 잔혹하게 생명에의 원시적 본능을 깨닫고 돌아온다.

어둠은 패배의식이요, 바다는 죽음을 상징하는 비극적 비전이라는 서정자교수의 이론과는 달리 자신의 존재를 재확인하고, 원색적인 생명의 지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사실, 이선희의 문학관 피력에도 「死에 대한 哲學은 무감각」이라고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고 했다.

어둠과 바다와 방황은 그녀의 자전적 요소마다 모두 점철되어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바다는 그녀에게 어머니의 품 속과 같은 안식을 주었다. 일찌기 어머니를 여윈 그는 외로울 때마다 바다를 산책했음이 수필에 자주 등장한다.

어려서부터 明沙十里에 해당화 필때이면 모래성 쌓어놓고 물끄러미 동해바다를 머-△하니 바라보며 지향없는 공상의 나라로 달리노라면 바닷물이 쳐들 어와 모래성 훑쳐가는 줄 몰르든 일이며 황혼의 松濤園을 찾아 한국조 노래를 부르며 끝없이 애수에 잠겨 눈물을 흘리든 일은 넘우나 평범한 일이지요. 오늘날까지 이 조고만 몸둥이의 全體는 전혀 원산의 해변가에서 길러워졌다고 할 것입니다.(三千里, 1936. 11)

달밤에 바다에 나가 가슴 속 저며드는 대지의 위대한 생명을 엮드려 호흡하고 싶어 어려운 밤길의 모험을 단행하기도 한다.

달밤에 바닷가로 나간다. 가면서 ‘나는 사반아로 가고 싶어요. 정령의 나라 춤과 음악의 나라! 그 가운데로 영원히 흘러 단니는 불멸의 방랑인이 되고 싶습니다.’(中略) 내 가슴은 차차로 어두어 온다. 지어질듯한 달빛의 가락가락

17) 〈탕자〉, 문장. 1940. 1.

을 타고 내 가슴으로 숨어 드나니 나는 이것을 구하여 어려운 이 밤길의 모험을 단행한 것이다. (中略) 대지에 업드려 위대한 생명을 호흡하고 싶었다. (〈나의 월광곡〉, 삼천리, 1934. 9)

앞에서 살펴보았듯 그녀는 절벽같이 캄캄한 폭풍우의 밤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파도에 휩쓸려 넘어져도, 태연히 다시 일어나 바다를 노려보았다 한다.¹⁸⁾ 어둠은 죽음이 아니라, 안식이요, 바다는 새생명의 원색적 힘을 충전시켜 주는 훌륭한 원동력의 역할을 하고 있다.

외출 역시 그녀 작품 속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테마이다. 〈처의 설계〉의 남소라도 남편의 불륜때문에 친정으로 가려한다. 하지만 소라가 간 곳은 친정 가까운 어촌으로, 바닷가(중세기적 량만)에서 심란한 마음을 달래고 서울(근대생활)로 돌아온다.

〈여인명령〉의 숙채는 남편의 죽음으로, 사생아가 된 아들을 안고 옛 애인 유원이 있었던 섬으로 와서 삶의 안식을 찾으려 한다. 그 알섬 역시 그녀의 친정 곁이니 남편과의 서울생활이 오히려 인생의 긴 외출이었던 것이다.

〈오후 11시〉, 〈탕자〉, 〈매소부〉, 〈연지〉 등 어둠 속을 방황하면서 안식을 구하는 인물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하나같이 방황은 하였으나 모두 현실로 돌아온다. 이것은 현실도피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현실로 돌아오지 않을 수 없는 당시 조선여인들의 숙명이었다. 당대의 여류명사인 모운숙, 장덕초와 함께 자동차로 드라이브한 여행기를 보면 한껏 화려한 외출의 분위기에 빠져 있던 중 본인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렇게 현실과 떠났다가도 내일 아침 오이장사에게 일전만 덜내자고 바둥바둥

18) 이선희, 〈나의 월광곡〉, 삼천리, 1934. 9.

——, 〈어촌〉, 신가정, 1934. 8.

——, 〈별것 없습니다〉, 조광, 1937. 11.

——, 〈나와 아버지 산보〉, 여성, 1938. 10.

할테지」(여류문인 자동차 橫走記, 女性, 1936. 8)하며 현실로 환원한다, 이렇게 自由를 갈구한 외출도 현실에의 환원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2.2.3 여성해방과 자기인식

이선희는 신교육을 받고 사회적 활동을 활발하게 한 당시의 여류명사였다. 1930년대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형식상으로나마 향상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남성우위의 전통적 윤리관에 억매인 여성 스스로가 자기권리를 포기하고 봉건적 폐습을 답습하고 있었다. 이 상황은 신식 여성에게도 마찬가지로 무의식중 남성중시의 사고에 젖어 있었다. 男性文人조차 여류문인을 「계절의 화초적 존재」라 하고 소설가 안희남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싫은 것을 열거하기를 첫째, 여자가 쓴 글, 둘째, 글쓰는 여자, 셋째, 여자가 글쓰는 것이라고 까지했다. 그러나 이선희는 타고난 활달한 성격(본인은 성격을 명랑했다가 우울해지기도 하는 이중적 성격이라고 함.)¹⁹⁾으로 자유로운 여성의 본성을 노출시켰다. 이것은 출신지역의 성향도 있겠지만 남달리 개방적인 면이 발견된다.²⁰⁾

당시 여류평론가 任淳得에 의하면

현재 부인문필가중 정덕조씨를 제외하고는 이선희, 최정희, 모윤숙 삼씨라, 북조신 출신이다. (중략) 경상도 출신인 장덕조씨의 보수적 가정분위에서 생긴 기품과 대비하여 함경도 출신인 다른 삼씨의 놀라운만치 전형적 新開地풍습을 보여주는 작품세계……우리들의 낡은 세대는 후자를 가르켜yal 「상스러운다」한다. (女性, 1940. 9 <拂曉期에 처한 朝鮮女流作家論>)

19) 이선희, <나의 월광곡>, 삼천리, 1934. 9.

20) 설문조사, 맨처음 서울 왔을 때, 전차문을 못열어 발로 참.

김남천, <조선인기여인예술가군상>, 여성, 1937. 9

여급이란 별명, 대낮에 수도가에서 목물한 사건.

북조선의 기질을 당시의 경직된 봉건적 잣대로 상스럽다고까지 했다. 이선희의 작품에 대해서는

이선희씨는 즐겨 孤島에의 遍歷을 계속하며 커다란 社會라는 動態에서 遊雜한 그나마 빨리 드러다되는 관념적인 고뇌를 아슬아슬한 기교를 부려가며 향락하기 시작한지 수년이 되었다. (중략) 한동안 뽀오드레르의 아류인 위악의 정신에 중독한 이땅의 어중이 떠중이시인의 穢을 일본도 벗어나지 못했고 게다가 병적인 경련과 정지할 수 있는 의식적인 코셋트까지 가미되어 실로 우리는 불쾌하다. (上同)

나아가 그녀는 「부질없이 개인의 완성만을 바라는 변질적인 精神女는 마음대로 지상에서 사라지기를 바라는 바이다」며, 사회적 현실폭로가 아닌 순수한 인간의 본성이나 감정을 나타낸 문학을 매도했다.

이런 당대의 풍조에서 이선희는 확실히 이단자였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없었으니 여성으로서 지켜야 할 봉건적 윤리를 아무래도 덜 강요받았고 자립심이 강한 여성으로 성격형성이 되었을 것이다. 그녀의 수필에서 보듯 아버지와 많은 대화가 있었고, 부군 박영호씨가 처의 사회활동을 적극 밀어 주는 사람이었다.²¹⁾ 여기에다 그녀의 어린 시절부터 자리잡은 서양남자에의 이국적 정서가 겹쳐 조선의 남자들과 곧 잘 비교하여 당대 남성들의 봉건성을 힐난한다.

‘사내가 병신아닌 다음에야 외입 좀하면 어떡냐’

이것은 아직도 문화가 덜된 우리들의 상투로 하는 말이고 오늘날 이러한 이도 양젓물 사발을 드는 부녀자가 옆에 아홉은 된다처도 소라에게 잇서선 역시 천재의 방증은 일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동네 녀편네들의 상식이 소라에겐 우주의 어느 천체 하나가 땅에 떠러져 군대도 이에서 더 큰일은 될 수 업습

21) 장덕조, 〈내동무 공개장 - 동무 이선희〉, 여성, 1938. 9.

것 가탸다.〈妻의 設計〉, 매일신보, 1940).

‘청재가 가는 바엔 돈이라도 잇서야지’

이것은 소라의 가장 비밀한 생각이었다. ‘청재가 가는 바엔 돈이라도 떼내야지’

사실은 어떠한 말이나 소라는 이 ‘떼내야지’를 생각만 해도 불쾌했다. 그래서 몇번이고 꺾쳐보았다. (上同)

작품 속에서도 나타나듯이 남자의 외입이나 성격불화 등은 이혼의 조건이 되며 미망인도 재혼을 해야 한다는 여성의 권리회복을 내세워 나아가 이것은 여성해방의 의미로도 확대시켜 볼 수 있다.²²⁾

소설 〈도장〉에서는 굴종만을 아는 조선의 구식 맛동서는 「자근 동서의 요강까지 부셔서 바치면서」, 이혼서류에 찍을 도장을 지키다가 하늘 같은 남편이 「가막쏘」에 간다는 간계에 넘어가, 도장을 내어 주고마는 남성의 일방적 횡포에 우롱당하는 구식 여성으로 해학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혼이 거론될 때 위자료를 청구하여야 한다는 것도 당시 봉건사회의 관습으로는 생각지도 못할 여성의 권리를 주장한 것이 소설 〈妻의 設計〉와 〈계산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 돈으로 환산되지 못하면 그의 목숨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남성우위사회의 모순을 지적하고 당당히 이혼을 요구하는 여성의식의 개혁을 보여준다.

〈매소부〉에서도 남자에게 청춘을 유린 당한 윤라녀가 그 보상을 남자에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며 남성의 목숨을 요구한다.

나아가 성의 자유, 경제의 자유를 이루어야 하며, 「남녀의 평등우에 신연애의 도는 서저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실제로 성의 평등이 다 먼 저 서저야 한다.」²³⁾고 가부장제도와 이에 근거한 여성차별의 문제를 거

22) 남녀대항 좌담회, 여성, 1937. 5. 여기에 나타난 李善熙의 발언.

23) 〈심푸손 부인의 연애사건 비판〉, 삼천리, 1938. 5.

른하고 소설로 형상화시켜 여성해방을 부르짖는다.

자유와 개방주의의 물결 속에서 기존의 구습전통과 제도를 거부하기 시작하는 여성들의 자아인식이 그녀의 소설 속에서는 섬세한 여성심리 묘사로 나타난다. 1920년대의 여류작가들이 의도적으로 작품 속에서 여성해방의식을 강조했다면 이선희의 작품에서는 여성들의 내면심리를 세밀하게 서술함으로써 효과를 한 차원 높였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여인명령〉의 주인공 숙채는 신여성으로 본체가 있는 줄 모르고 결혼했다가 혼인신고도 하기 전 남편이 갑자기 죽는다. 이에 본체는 당당하게 곡을 하고 천정에다 목을 맨다. 열녀라고 칭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숙채는 낮이 빠져 남의 일처럼 멀거니 듣고 서 있다.

〈연지〉에서도 전실의 아들로 인해 받는 정신적 피해를 옛애인과 야반도주로 해결을 시도하나 자기가 데려간 딸이 또 하나의 전실 아들임을 깨닫게 되는 자아인식의 과정이 흥미롭게 펼쳐진다. 주인공이 느끼는 기묘한 아이러니의 감정을 특유의 필치로 섬세히 표현하고 있다.

이런 소설 속의 여인들의 모습은 그녀의 자전적 요소에 투영시켜 볼 수 있다.

최정희씨의 회고에서 보면, 어느 날 그녀의 집을 방문했을 때 건넌방에 앉아 있었는데 안방에는 시어머니와 전실 딸이 와 있는 듯했다고 한다. 이 사실은 〈도장〉, 〈여인명령〉이나 〈연지〉의 모태가 되었을 것이며, 섬세한 여자의 심리묘사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게 웬 년이 남의 남편 초상에 와서 지랄이나 냉큼 나가거라’

숙채는 이렇게 욕을하며 그 여편네의 등덜미를 밀쳐낼 수는 업섯든가. 아니 되려 그 여편네야말로 ‘고인 김병희’의 본체인 것이다. 그 여편네는 함부로 남편의 몸을 만지며 사뭇 불마진 소색기처럼 날뛴다.

‘애고 애고’

그 여편네 울음소리는 종이 끄치지 안혔다. 숙채는 다른 방에 나와 어린아

이를 안고 안저서 마치 기도하는 여신도모양으로 눈을 감고 기쁜 목상에 잠겨 있었다.(<여인명령>, 조선일보, 1937).

방안은 전혀 우습 빛이다. 비록 금녀까지라도 눈이 원통 그 아이에게 쏠리는 것 가튼 자세를 취하지 않을 수 업고 유쾌한 듯이 우서보이지 않을 수 업었다. (中略) 남편이 아이 겨테 가까이 할 때 그 실코 괴롭고 심사가 뒤집히는 그것이다. (中略) 금녀는 밤으로 또 나즈로 이와 같은 생활은 마치 두개의 기름엷는 물체가 쉬지안코 마찰을 해서 그 마찰면이 푹푹푹 다러 들어가는 느낌도 있고 또 체 신경이 몽당비자루처럼 무즈러 진것 갖기도 했다.(<연지>, 조선일보, 1938).

후처로서 갖는 이런 심리적 갈등묘사를 보면 경험세계의 형상화가 작품의 근간이 되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케 할만큼 예리하고 치밀하다.

3. 결 론

작가 이선희는 문필활약에 비하여 전기적 사실들이 별로 알려지지 않았고, 아울러 그의 문학 세계는 깊은 연구가 없었다. 이에 본고는 당시의 문예지, 잡지, 신문 등에 실린 그녀에 관한 편린들을 모두 수집하여, 그 속에서 추출한 자전적 요소들이 그녀의 작품 속에 어떻게 투영되었나 살펴서, 이선희문학의 본질에 접근하고자 했다. 짧은 문단생활에 비교적 두드러진 활동을 한 그녀는 어릴 때부터 이국의 문물을 접할 기회가 많아, 작품 속에 이국의 정서가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또, 바닷가에서 자라면서 바다의 영원하고 원시적인 격렬함 생동감을 그녀의 근원적 정서로 배태하게 된다. 그래서 작품 속에 칼멘의 열정처럼, 여인들만의 도시처럼, 원시적 생명감이 담겨져 있다.

이것은 개인의 의식과 경험의 차원을 넘어 봉건적 가부장제, 윤리관을 거부하는 여성의 자아인식과 여성해방문제를 사회적으로 드러내 주는 것과 연결된다. 조선의 여인네들은 오랜 세월 유교적 윤리관에 억눌려 왔기 때문에 이미 길이 든 상태였다. 그런 습관이 되어 버린 굴종의 관계를 과감하게 떨쳐 보는 시도로 <외출>을 택했고, 그 외출은 여성 자신의 누적된 사고의 경직과 봉건사회의 단단한 제약들로 결국 환원되고 마는 것을 <귀가>라는 상징으로 이선희는 작품을 통해 보여 준다. 주인공이 대개 신여성 도회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굳어진 인식에는 불가항력임을 알게 된다. 물론 거기에서 현실타개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이 이선희문학의 한계임을 지적해야만 한다. 하지만 女性의 自我인식으로 근대 여성해방운동의 가교역할을 한 가닥 수행한 것에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본 연구를 하는 가운데 군데군데 번뜩이는 작가의 섬세한 시적 문체를 발견하였다. 이것은 작가가 당시 작가들의 「人物과 作風の 印象式 漫評」에서 작가들의 작품을 예리하게 평한 기록을 봐도 알 수 있다. 이것을 간추려 살펴보자.

그 말씀하는 것이란 늘적늘적 뜨적뜨적 순짐액질을 다량으로 가지고 계시더
군요. - 김동인

겨울 침하밀 응달진 구석처럼 그렇게 싸늘한 고적이 선생을 감고 돕니다.
- 이은상

감실감실 떠서 우습을 보내는 눈매에 그분의 뾰족한 감각과 명주실같은 감
정이 흐르고 있습니다. - 정지용

좀 푸석푸석하고 텅텅한 맛이 있습니다. - 이무영

여름 엇가락처럼 느러져 빠지고 독기로 작은 절구통처럼 둔한 문장
- 김기림

영뚱하고 승글승글하고 모질게 써내는 훌륭한 작품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고 봅니다.

-박태원

그 작품엔 늘 거미줄같이 섬세하고, 봄비와 같이 부드러운 정서가 출렁이고 있더군요. (중략) 조선의 이야기는 아닌듯 우리의 현실과는 색채와 그 향이 함께 다릅니다.

-이효석²⁴⁾

이렇게 감각적인 문체는 작품 곳곳에 산재해 있다. 이것은 김남천의 당시 評에서 지적된 바 있는 운문과 같은 압축된 시적 문체와 함께 연구할 과제이다. 또 이효석의 작품(메밀꽃 필무렵, 노령근해, 북극점경 등) 발표시기를 즈음해서 그녀가 받은 영향, 관련성을 살펴 효석과 함께 30년대 후반 순수문학의 터전을 닦은 그녀의 독특한 문학세계 규명을 과제로 남긴다.

24) 이선희, <인물과 작품의 인상식 만평>, 조광, 1936. 4-5.

작품 연보

- 단편소설, 街燈(不夜女人), 中央, 1934. 12
 午後十一時, 新家庭, 1936. 6
 圖章, 女性, 1937. 1
 計算書, 朝光, 1937. 3
- 꿈 뜨, 숫장수의 妻, 女性, 1937. 4
 女人都, 朝鮮日報, 1937. 6. 22~24(3회)
- 장 편, 女人命令, 朝鮮日報, 1937. 12. 7~1938. 4. 5(84회)
- 꿈 뜨, 離別記, 三千里文學, 1938. 1
- 단편소설, 賣笑婦, 女性, 1938. 1
 연지, 朝鮮日報, 1938. 7. 24~8. 11
 돌아가는 길, 野談, 1938. 11
 蕩子, 文章, 1940. 1
- 증 편, 妻의 設計, 매일신보, 1940. 11. 17~12. 30(37회)
- 단편소설, 春雨, 新世紀, 1941. 6
 勝利, 放送小說 명작선, 1943.
- 증 편, 窓, 서울신문, 1946. 6. 26~7. 20
- 시 , 休息, 女性, 1937. 11
- 그 외 다수의 隨筆 및 雜文